



4면

'전주형 상생일자리' 상생협약안 의결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음 10월 26일) 제2911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시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국 최초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북에 준공

겨울철 한랭질환 피해 최소화한다

김제 백구 일대서 지원센터 준공식

전북도 제안 사업 정부 추진 과제로

청년 창업보육 지원 실증온실·빅데이터 센터 통해 ICT 기자재 등 개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29일 김제시 백구면 일대에서 준공식을 갖는 가운데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송하진 도지사, 박준배 김제시장, 황영석 전북도의회 부의장, 김철수 전북도의원 등 참석자들이 축하하고 있다.

청년들이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업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돕고, 지속적인 농업의 혁신을 통한 농생명분야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북에 전국 최초로 준공됐다.

특히, 전북도가 대선공약으로 제안해 이뤄진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대한민국 농경문화의 발상지인 전북(김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농업까지 아우르는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기반이 들어섬에 따라 '농생명 생태문명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도정 목표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2면·3면>

도는 29일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송하진 도지사, 박준배 김제시장, 황영석 전북도의회 부의장 및 도의원,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이상철 전북도 삼락농경 위원장, 농민단체장,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면적은 21.3ha의 규모로 추곡장

면적의 30배 규모에 달한다. 이곳에는 창업보육 실습농장 23ha를 비롯해 임대형 스마트팜 4.5ha, 스마트팜 실증온실 1.6ha, 혁신밸리 지원센터 등이 갖춰져 있다.

시설별 핵심기능은 스마트팜 창업보육 및 스마트팜 임대운영, 스마트팜 실증연구, 빅데이터 수집·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혁신밸리에서의 스마트팜 창업보육은 입문교육 2개월, 교육형 실습 6개월, 경영형 실습 12개월로 총 20개월 과정으로 매년 50여명을 선발해 운영

된다. 교육수료 우수생에게는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팜 실증온실과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ICT 기자재 등을 개발·보급하고,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디지털 농업으로 진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간다는 게 전북도의 계획이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전국 최초로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된 것에 대해 축하한다"며 "이곳에서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에 도전하고, 첨단 농업기술 빅데이터가 활용돼 지속가능한 농업 혁신을 이뤄 스마트팜이 전북도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도 축사를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끊임없는 변화에 대응하면서 전북의 농업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겠다"라며 "전북이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로 가는 길을 탄탄히 다져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그러면서, "스마트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과 농생명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더욱 모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참석한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첨단농업 및 청년농의 미래를 이끌어갈 거점이 될 것"이라며, "청년농이 유입돼 농촌에 활력이 생기고, 농생명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성기자·김제=곽노태기자

도, 한랭질환 감시체계 가동
작년 환자 중 저체온증 87.5%

전북도가 겨울철 한랭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도내 응급실 21곳에서 한랭질환자의 진료 현황을 신고받고, 질병관리청에 한랭질환자 현황을 제공한다. 제공된 도내 한랭질환자 현황은 질병관리청의 누리집(www.kdca.go.kr)을 통해 매일 게시된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으로, 크게 전신성(저체온증), 국소성(동상, 침수병, 침족병, 동창 등)으로 분류하며, 60대 이상과 오전 시간에 많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지난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도내 한랭질환자는 총 16명(전국 433명)이다.

이는 직전 해의 15명(전국 308명)보다 1명이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60대와 80대 이상이 각 4명(25%)으로 가장 많고, 70대 3명(18.8%)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환자가 10명(62.5%)으로 여성환자 6명(37.5%)보다 많았다. 질환 종류는 저체온증이 14명(87.5%)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재성 동상 1명(6.3%), 다발성 신체부위 동상 1명(6.3%) 순이었다.

또, 전체 환자의 93.8%(인 15명)이 실외에서 발생했다. 시간대로는 오전 3시~6시 사이에 전체 환자의 29%(인 4명)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오후 3~6시와 6~9시에서 각 3명(18.8%)이 발생했다.

지난해 신고된 한랭질환 추정 사망 사례는 없으나 직전 해의 경우는 2명으로 사망 요인은 모두 저체온증으로 추정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랭질환은 예방이 가능하므로 겨울철 한파특보 등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내복, 장갑, 목도리, 모자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등 한랭질환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호성 기자

학교 무상급식에 80억원 추가 투입

도교육청, 내년 유·초·중·고 학생
급식단가 200원 인상 급식 품질 제고

이날 합의된 내용에 따라 유치원 -8,000원), 특수학교(3,500원-8,700원), 초·중·고등학교(2,800원 -8,700원)

무상급식 단가가 200원씩 인상되면, 내년도 전라북도 무상급식 총 예산은 1,334억원이 반영될 예정이다. 또 유·특수학교 및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금은 교육청에서 100%,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과 자치

단체가 50%씩 부담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 개선으로 시립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교육청 재원 부담가중과 체위가 다른 고등학교 급식비 단가 인상부분, 저소득층 학생들만 따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비교육적인 부분 등의 개선방안을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